

독수리 오자매의 날갯짓

접 수 번 호	
학 교 명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동아리(팀)명	독수리 오자매

목차

1. 우리 동아리[팀] 소개하기 -----	3쪽
2. 독도체험 활동 소개하기 -----	3~9쪽
3. 성과 및 향후 계획 -----	9~11쪽
4. 독도체험 활동 후의 감상 -----	11쪽

1. 우리 동아리(팀) 소개하기

○ 동아리(팀)명 소개

우리가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은 과거 독도에 다녀온 한 팀원 덕분이다. 그 팀원은 두 눈으로 독도를 보며 지켜내야겠다 다짐했다. 그는 독도에서의 아름다운 일출 사진 등을 통해 그 의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우리는 팀명에 '독'도를 '수'호하면서 '이'롭게 하여 독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 '자'들을 '매'도하자는 독도수호의지를 담았다. 독수리 오형제가 무력으로 지구를 지키듯 '독수리 오자매'는 사랑으로 독도를 지키고자 한다.

○ 동아리(팀) 구성원

순번	성 명	학년	동아리(팀) 내 역할
1	강민주	2	팀장, 일정 관리, 설문지 분석
2	강유진	2	서기, 설문지 통계, 홍보물 제작 및 게시
3	김민수	2	인터뷰 영상, 지원서, 홍보물 제작 및 게시
4	김은지	2	홍보물과 설문지 제작
5	엄지수	2	팬팔 활동, 설문지 제작, 홍보물 게시

2. 독도체험 활동 소개하기

○ **활동 주제** : 독도에 대한 인식 조사 및 적극적 실천 유도

- **주제 선정 이유** :

많은 교육과 다양한 매체의 정보로 인해 대한민국 학생 중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인식에 비해 독도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는 독도에 대한 사실만을 알고 말로만 독도수호의지를 다질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독도사랑을 보여주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우리뿐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 일치를 목표로 삼았다.

○ **활동 기간** : 5월 2일 ~ 8월 16일

○ **추진 방법** :

1. 국내외 학생 대상 설문지와 질문지 제작
2. 설문조사와 펜팔활동 진행
3. 설문지 분석 이후 미니전시회 기획
4. 홍보물 제작
5. 미니전시회 및 인터뷰 진행
6. 홍보물 게시 및 지원서 작성
7. 펜팔활동 답변 수거 후 분석

○ **활동 내용(자유롭게 기재하시오.)**

날 짜	독도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6월	설문조사	학교	본교 1, 2학년 학생들 128명을 대상으로 시행. 독도가 잘못 표기된 지도를 활용하여 독도에 대한 인식 조사
7/11 ~ 7/13	미니전시회	학교	실생활에서의 독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 인식 여부 조사, 설문지와 일치하는지 확인, 인터뷰 진행
6/1 ~ 8/9	펜팔	집	국외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 조사, 국제적인 노력의 필요성 대두
7/23 ~	독도 홍보물 게시	학교	독도의 자연환경, 옛 이름인 '석도', 독도를 수호한 인물들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및 게시
8/8 ~ 8/16	지원서 작성	학교	지원자에 한해 교육 후 독도지킴이 지원서 작성

1. 설문조사

1) 시행 이유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 앞서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우선으로 여겼다.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독도가 잘못 표기된 지도를 알아차리는지'에 대한 조사와 함께 학생들이 지도의 잘못됨을 인식해 볼 수 있게 하고자 했다.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등 앞으로의 독도사랑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도 함께 조사하였다.

2) 활동 과정

독도인식 관련 질문 문항을 만든 후, 독도가 잘못 표기된 지도 4개를 번호를 매겨 각 문항 옆에 배치하였다. 지도는 4번으로 갈수록 잘못 표기된 내용이 노골적인 순서로 배열했다. 설문지는 단면 2쪽으로, 1쪽에서는 독도에 대한 본인의 인식, 독도에 대해 알게 된 경로, 현재의 독도 관련 교육, 독도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노력, 외국인 친구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 알고 있을 경우 대응방식에 관해 질문하였고 2쪽에서는 1쪽의 지도들이 잘못되었다고 느꼈는지, 실생활에서 잘못 표기된 지도를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대응, 잘못 표기된 지도에 대해 한국이 취해야 될 행동을 물어보았다. (붙임 1) 설문은 본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1학년 60명, 2학년 68명이 참여하였다.

3) 활동 결과

설문 결과, 독도에 대한 본인의 인식 정도가 '보통'이라고 답한 학생이 40.6%로 가장 많았다. 60.9%의 학생이 독도에 대해 알게 된 주된 경로로 '교과서'를 선택했다. 그러나 현재의 독도 교육에 대한 문항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학생이 8.6%로 매우 낮았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는 40.6%가 '일본의 행동에 대한 대응'을, 30.5%가 '우리나라 학생들 교육'을 선택했다. 본인의 외국인 친구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 잘못 알고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설명한다는 학생이 78.9%로 가장 많았다. (붙임 2)

한 설문지에 첨부된 지도에 해대 89.1%의 학생들이, 즉 단 1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1번 지도부터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답한 학생이 57%였고 3번 지도의 문제점 찾기를 가장 어려워했다. 실제로 잘못 표기된 지도를 본 적 있냐는 질문에는 절반 정도의 학생이 '네'를 골랐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잘못 표기된 지도를 보았을 때의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그냥 지나쳤다'라고 답변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적극적 대응을 한 학생들은 대부분 동아리 혹은 시민단체를 통해 약간의 강제성을 받아서였다. 잘못 표기된 지도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표기 정정 요구'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국내외로 홍보', '국제 사회에서 협상' 등이 있었다.

2. 미니 전시회

1) 시행 이유

설문조사에서의 인식을 실생활에서의 인식이라고 판단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보충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2) 활동 과정

설문조사에서 가장 적은 학생들이 문제점을 인식한 3번 지도(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를 독도의 자연환경과 함께 게시했다. 독도의 위치, 주요 명소, 자연 환경에 대한 사진 여러 장도 함께 게시했다. (붙임 3)

3) 활동 결과

전시관람 후 첫 번째 있는 독도 지도의 표기가 '리앙쿠르 암초'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학생은 거의 없었다. 그들 중 아무도 복도에 게시된 잘못된 독도 지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인터뷰에서 '평소에 지나칠 수 있는 지도들을 보니 새롭고 많이 얻어가는 것 같다.', '이전에는 외교활동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활동을 하고 나니 잘못된 지도를 알아보는 것부터가 독도를 위한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독도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반성하게 되었고, 앞으로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제출자료 3 - 인터뷰 영상)

3. 펜팔

1) 시행 이유

독도에 대한 국외 학생들의 인식 현황을 알아보고 대외적으로 독도에 대해 알리기 위한 향후 계획을 고안해보는 기회를 갖기 위해 실시하였다.

2) 활동 과정

펜팔용 영문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총 4개의 질문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주관식으로 응답하도록 설정하였다. 국적, 연령, 성별 등 응답자의 기본 정보를 1번 항목으로 두었고, 독도에 대한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2번 항목에 설정하였다. 이에 대해 긍정의 대답을 할 경우 독도를 알게 된 경로와 독도가 어느 국가의 영토라고 생각하는지의 추가 답변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독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경우 일본에서 칭하는 독도의 명칭 '다케시마'에 대해 들어봤는지 질문하였다. 3번 항목에는 독도가 응답자의 지도에 독도가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표시되어 있다면 어느 나라의 영토로 되어 있는지를 물었다. 4번째 질문 항목에는 응답자의 지도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어떻게 칭하고 있는지를 넣었다. (붙임 4) 이후 국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설문을 진행하였다.

3) 활동 결과

총 10명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별(명)	남(2)	여(8)
-------	------	------

나이(명)	12세(5)	16세(3)	17세(1)	20세(1)
-------	--------	--------	--------	--------

국적(명)	한국(2)	대만(1)	일본(2)	미국 (3)	러시아(2)
-------	-------	-------	-------	--------	--------

2번 항목인 '독도를 아는가?'에 대한 긍정 답변(독도를 안다)은 3명이며, 이들은 뉴스와 교내 토론, 부모님으로부터의 교육을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부정 답변(독도를 모른다)은 7명이며, 이는 일본에서 독도를 부르는 명칭인 '다케시마'에 대해 들어본 1명, '다케시마'를 들어보지 못한 4명, 독도에 대해 잘 모르지만 한국 영토처럼 들린다고 답한 1명, '다케시마'를 들어봤는지 여부가 확인 불가능한 1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3번 항목인 '독도가 응답자의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가?'에 대한 긍정 답변(표시되어있다)은 4명이며, 이는 울릉도 접근지역이라고 답한 1명, 한국 영토라고 답한 2명, 리앙쿠르 암초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답한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부정 답변(표시되어 있지 않다)은 6명이며, 그중 1명은 인터넷 검색 결과 한국 영토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답했다. 4번 항목인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의 명칭'에 대해서는 '동해' 3명, '일본해' 4명, '동해'와 '일본해' 동시 기입 2명, '한국 해협' 1명으로 답변이 이루어졌다. (붙임 5)

4. 독도 홍보물 게시

1) 시행 이유

게시물을 부착하여 독도에 대해 홍보하였다. 우리의 활동에 대한 내용도 포함함으로써 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증진하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2) 활동 과정

어떤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회의하면서 홍보물의 내용을 정했다. 독도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모두 아는 선생님께서 독도의 자연, 인문환경을 소개해주시는 게시물을 제작하였다. (붙임 6) 재미있고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하여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카카오톡 형식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붙임 7)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들과 대화방을 만들어 독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독도 지킴이를 모집해 지원서를 받기도 하였다. 독도의 또 다른 이름 '석도'를 통해 단순히 돌섬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

겨야 하는 섬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시물도 부착했다. (붙임 8) 위의 세 가지 게시물들을 각각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눈길을 끌어 다수가 볼 수 있는 급식실, 매점, 복도에 각각 게시하였다.

3) 활동 결과

모든 학생들이 아는 선생님께서 독도의 자연환경을 소개해주시는 게시물을 보고 많은 친구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선생님의 사진이 눈길을 끌어 그 게시물을 자세히 보게 되었고 우리가 평소 독도에 대해 교육 받을 때 배우지 않은 독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고 감탄하였다. 메신저 형식의 게시물은 학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갔고, 몰랐던 인물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다시 한 번 독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독도 지킴이 지원서 또한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복도에 붙인 '석도' 게시물은 학생들이 지나다니며 보면서 독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5. 지원서 작성

1) 시행 이유

우리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보다 확실한 정보 전달을 위해 지원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지원서를 통해 대일외고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독도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자 했다.

2) 활동 과정 및 결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독도사랑을 실천하는 '독도지킴이'가 될 지원서를 제작했다. (붙임 9) SNS 형식의 홍보물에 지원서에 관한 내용을 실었다. 독도 지킴이에 가입하라는 메시지를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게시판을 붙이고 난 후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찾아왔고, 독도지킴이 지원서를 자세히 읽어본 후 서명하였다. 이들은 지원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게시한 세 가지의 홍보물을 모두 보고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만 했다. 대략 30명의 학생들이 독도 지킴이에 지원하였다. 우리는 학생들로부터 '석도가 정말 돌 석자였다니 놀라웠다.' '흔한 홍보물인줄 알았는데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지원서를 쓰니까 왠지 모르게 독도에 대한 책임의식이 생긴다.' 등의 반응을 들을 수 있었다.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활동 보고서	보고서	독도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한 독도체험 발표대회 보고서

2	붙임	한글파일	보고서 붙임 파일
3	인터뷰 영상	영상	활동에 대한 다른 친구들의 반응을 담은 영상

3. 성과 및 향후 계획

○ 활동 성과

1. 설문 조사 활동

설문 조사 이후 우리는 향후 계획과 현장 적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었다. 정보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팀과 대한민국의 독도사랑 계획을 정리할 수 있었다. 설문을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실천을 촉구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게시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적으로 학생 대상 독도 홍보 정책을 펼 때 우리의 설문조사 결과들을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학생들은 주로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정보를 얻었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을 문제점으로 여겼다. 독도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일본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도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독도가 잘못 표기되어있는 지도를 알아보았다. 잘못됨을 인식하고 있고 독도사랑 실천의지도 충분하지만 자발적인 수정 요구와 잘못됨을 알리기 등의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설문조사 활동의 한계점도 있었다. 첫 번째, 지도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조금 선불렀다. 우리는 1번 지도(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보다 2번 지도(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와 3번 지도(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가 덜 노골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 반응은 반대였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1번 지도는 쉽게 문제점을 찾아낸 반면, 2번,3번 지도는 잘 눈치 채지 못했다. 2번 지도는 한자로 되어있는 탓, 3번 지도는 '리앙쿠르'라는 이름이 생소한 탓이었다.

두 번째, 학생들의 지도에 대한 인식 여부가 확실하지 못하다. 학생들이 모두 '설문조사'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의 잘못됨을 찾아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리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후 지나가다 걸려 있는 지도에 독도가 잘못 표기되지 않는지 보는 것을 원하였는데, '설문조사'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2. 미니 전시회

미니 전시회는 학생들이 정말 설문지의 답변과 일치하게 잘못된 지도를 잘 인식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작한 활동이었다. 설문조사 활동의 한계점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지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의 높은 인식률과는 다르게 저조한 인식 정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한 평상시 관심 증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다. 설문조사만 진행하였으면 설문조사 답변을 바탕으로 그냥 넘어갔을 부분이었다.

3. 펜팔

국내에서는 알 수 없는 해외의 현황을 알 수 있었다. 독도에 대해 아는 인원보다 모르는 인원이 더 많았다. 국내와 달리 응답자의 지도에도 독도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설문을 진행한 총 인원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리앙쿠르 암초'라고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지도도 전체 응답자의 지도 중 60%를 차지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향후 대외적인 독도 홍보 계획의 밑바탕이 되어주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지도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4. 독도 홍보물 게시

독도 홍보물을 통해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이야기한 '잘못된 교육'의 해결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우리는 홍보물을 만들 때 '익숙함'을 가장 큰 목표로 잡았다. 때문에 모든 학생이 아는 선생님께 사진을 사용해도 되는지 부탁드렸고, 메신저를 활용한 홍보물을 만들었다. 매점과 급식실에 부착한 것도 익숙함을 위해서였다. 결과적으로, 글 위주로만 진행되는 학교의 교육을 받을 때보다 많은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5. 지원서 작성

지원서를 통해 학생들은 이전보다 홍보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다. 교과서의 독도에 신경을 쓰지 않던 학생들이 교내 게시물을 통해 독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수호의지는 크나 실천하지 않던 학생들이 '책임감'의 무게를 받게 되면서 문제 상황 발생 시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 '책임감'의 무게는 향후 독도 사랑실천 및 독도수호의지 확산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향후 계획

교과서와 학교 교육의 상반된 응답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때, 교과서가 독도에 대해 바르게 알려주고 있는지, 어떤 교과서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동시에, 학교에서 독도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도 고민해야 한다. 대회를 위한 활동은 끝났으나 정보 전달을 위해 홍보물은 계속 붙여놓을 예정이다.

활동기간동안 교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였으니 기회가 된다면 교외로도 나가보고 싶다. '미니 전시회'를 발전시켜 제대로 독도에 관한 사진들을 전시하는 활동이나, 또 잘못 표기된 지도를 숨겨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대일외고 학생만 전시회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설문조사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교외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 독도지킴이 지원서를 낸 친구들과도 함께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독도사랑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원서 작성과 같은 책임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의지를 북돋아야 한다. 이는 우리

같은 학생들의 노력뿐 아니라 국가의 독도 관련 교육에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지도가 전체 응답자의 지도 중 60%를 차지했기 때문에 외국에 독도와 동해가 올바르게 표기된 지도를 수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특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구글 지도부터 수정해야 한다. 위키피디아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백과사전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영화나 드라마 등의 문화 콘텐츠에서 동해가 ‘Sea of Japan’으로 표기된 경우,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이 또한 학생 수준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류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독도와 동해와 관련된 미디어자료를 전파하거나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고, ‘다케시마’가 아닌 독도가 올바른 표기임을 설명하는 역사 관련 자료를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게시하는 방법도 대외적으로 독도와 동해에 대해 홍보하는 데 좋다고 생각한다.

4. 독도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팀)원	느 낀 점
강민주	우리 팀의 향후 활동이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바른 인식이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에 사명감이 들고 앞으로의 활동들은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겠다고 느꼈다. 그리고 독도 활동을 하면서 독도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팀원들과의 활동을 통해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강유진	대회 신청서를 내던 4월에는, 제출까지 정말 긴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을 제외하면 그다지 긴 기간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3개월 넘게 체험 활동들을 하면서 팀원들과 함께 정말 많은 시간을 대회에 투자했다. 그 시간들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던 기획도,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던 제작도, 머리가 부서질 것 같았던 분석도, 뿌듯함을 느끼던 활동도 있다. 그 많은 시간들을 이 팀원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2학년, 어쩌면 내신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긴 기간 많은 활동을 하며 그거 아직도 하냐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러나 ‘책임감’의 무게는 무겁다는 것을 가장 몸소 체험할 수 있던 기간이었다. 책임감을 바탕으로 나는 더 큰 독도 사랑을, 더 깊은 독도 수호 의지를 다졌다.

김민수	<p>길지만 한편으로는 짧았던 기간 동안 팀원들과 독도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구상하고 실천하면서 독도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독도의 지도 명칭을 유의해서 살펴보는 것과 같은 사소한 노력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배웠다. 해외 거주민들과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독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불어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다.</p>
김은지	<p>독도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고민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독도를 더 사랑하고 지키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p>
엄지수	<p>국내외의 독도에 대한 인식 현황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후 향후 계획을 고안함으로써 독도를 지키는 데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활동을 하면서 한국인으로서 독도 수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야겠다고 다짐했다.</p>

5. 건의사항